

국어 기출 해설지	국어 문정호
2023. 8. 26. 지역인재 9급	

 **정호는국어왕** 



1. [정답] ②

[풀이] 비평하는 글은 시사 현안이나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대상의 내용과 구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관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관점을 바꿀 수 없다.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글의 단계마다 관점을 바꿀 수는 없다.

2. [정답] ④

[풀이] '생산력'은 [생산녁]이 올바른 발음이다.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예시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표준 발음법 제20항]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의견란의[견넌], 임진란임[진넌], 생산력[생산녁], 결단력[결탄넌], 공권력[공꿍넌], 동원령[동:원넌], 상견례[상견넌],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오답]

① [흑파], ② [체증], ③ 인사로 하는 말을 뜻하는 '인사말(人事말)'은 [인사말]이 표준 발음이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인사말'(X)

3. [정답] ②

[풀이] 밑줄 친 말에는 진행의 뜻이 없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이다.

[오답] ①, ③ '그 일을' 할아버지께서 하셨을 것으로 추측한 표현이다. '-더-'는 지난 일을 말할 때 쓰는 어미이며, <보기>의 문장에서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추측하는 뜻으로 쓰고 있다.

④ '하셨겠더구나'의 형태소 '하-, -시-, -었-, -겠-, -더구나' 중에서 '-시-'는 주체 높임에 쓰는 선어말 어미이다. <보기> 문장은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4. [정답] ①

[풀이] 이 시에서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이며 화자가 지향하는 탈속의 공간이다. 화자는 '들짚레'와 '쑥대밭'과 같은 소박한 자연의 소재를 그리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과 관련이 없다.

[오답]

② '산이 날 에워싸고 ~ 살아라 한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

고 시상을 전개한다. 산이 날 에워싸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과 동화하여 전원의 삶을 추구한다.

5. [정답] ④

[풀이] 휴대폰 사용과 교복 착용이라는 두 개의 쟁점 중에서 휴대폰 사용만으로 쟁점을 수정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정하는 쟁점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된다. '개정해야 한다'의 찬성측 입장인 긍정문 진술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이라는 표현은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다.

[오답] ① 찬성 측의 입장을 담지 않았고 긍정문 진술도 아니다. 수정하기 전 '개방해야 한다'가 조건에 부합하는 논제이다.

② '무분별한'과 '과도한'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정확한 표현이다. '빵', '라면' 등으로 간식의 종류를 명확히 밝히거나, '1개 까지만' 등으로 개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구분되지 않는다. 토론의 논제가 아니라 토의의 논제이다.

6. [정답] ①

[풀이] 둘째 문장에서 도파민이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도파민이 과다하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②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다. 도파민 단식 방법은 가능한 한 모든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 등의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③ 도파민은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과 자극을 추구한다. 또한 도파민에 휩싸인 뇌가 그 자극에 적응하면,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④ 도파민 단식 방법은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을 노린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했다.

7. [정답] ③

[풀이] 이 글은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소비의 중요성을 설명한 글이다.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우물', '비단을 짜는 사람',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 등의 생활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① 상업이 위축되면 농업도 황폐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②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내는 일은 소비를 비유한 표현이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소비를 하지 않아 기술이 실종되는 문제를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8. [정답] ①

[풀이] 주제적이지 않은 서평을 설명하기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예를 들고 있다.

9. [정답] ①

[풀이] 각각 '결제'와 '곤혹'이 맞다.

- 결제(決濟):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예) 결제 자금.
-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예) 결재 서류.
-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예)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을 느낀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예) 곤욕을 치른다.

10. [정답] ③

[풀이] 편의점은 일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였지만 공적 영역으로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편의점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새로운 진입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일이다. 진입장벽에 부딪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 ① 편의점이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을 설명한 글이다.

②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를 따질 경우 편의점의 최초 발상지인 미국은 물론 편의점의 최대 발흥지였던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목하 세계 최고 수준이다.’

④ ‘이제 일상 대화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창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처럼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편의점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참고] ‘목하(目下)’

① 「명사」 눈앞의 형편 아래.

예) 목하의 참상은 사람의 맘을 가진 사람으로 차마 볼 수 없을 만하니...

② 「부사」 바로 지금. 예) 목하 휴업 중.

11. [정답] ②

[풀이]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일의 중요성을 주장한 글이다. 재물을 혼자서 쓰는 것과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일의 차이를 설명한 (가)를 글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다)는 (가)에서 언급한 두 가지 행동의 결과를 설명했다. (나)는 (나)에서 언급한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쓰는 일’의 궁극한 점을 묻고 있다. (라)는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했다.

12. [정답] ④

[풀이] 논쟁이 활발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논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생산적인 논쟁이 많으면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그러나 의견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고 논쟁이 없는 곳이 된다. 의견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한다.

[오답]

①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그곳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거나 상호 비방만을 일삼게 된다.

②, ③ ‘의견 스펙트럼의 양극단만 보일 뿐 중간층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집단 간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기 때문이다.’

13. [정답] ②

[풀이] ‘곱다1’과 ‘곱다3’은 ‘곱아, 곱으니’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고, ‘곱다2’는 ‘고와, ‘고우니’로 활용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참고로 ‘곱다1’은 ‘그는 큰돈을 벌겠다고 주식에 손을 대었다가 도리어 곱고 말았다.’와 같이 쓰며, ‘곱다3’은 ‘추위에 손가락이 곱안 일을 할 수가 없다.’와 같이 쓴다.

14. [정답] ②

[풀이] 지향(志 뜻 지, 向 방향 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예) 평화 통일 지향 / 출세 지향

[오답] ① 동화(同 같을 동, 化 될 화): 성질, 양식(樣式),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③ 능력(能 능할 능, 力 힘 력):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④ 진퇴(進 나아갈 진, 退 물러날 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15. [정답] ③

[풀이] (가)의 서술자가 이명을 앓는 아우의 일에 공감하거나 슬퍼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① “그 소리는요, 동글동글한 게 별과 같아서 눈에 보이기만하면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는 이명을 앓는 아우의 말이다.

② 글이 잘되거나 못되는 일 또는 비방과 칭찬을 받는 일은 서술자의 일이다. 아이가 이명을 앓는 일은 서술자가 글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언급한 사례이다. 이명을 앓는 일은 병인데도 아이는 남이 몰라줄까봐 걱정한다. 글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모두 글쓴에게 달려있는 문제이다. 아이의 이명을 들어주는 일은 동무의 일이다. 동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여 안타까워 할 일은 아니다.

④ 아이는 이명을 앓고 있으며 그 소리를 동무에게 들려준다. 그러나 동무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동무로 표현된 독자의 평가는 저자인 아이의 이명과 다를 수 있다.

[참고] 글의 출처

(가)는 이덕무, 『청장관전서』, ‘이목구심서’의 일부이고, (나)는 박지원 『연암집(燕巖集)』 第3卷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자서(自序)’의 일부이다.

16. [정답] ④

[풀이] ‘망양지탄(亡羊之歎/亡羊之嘆)’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④에는 바람 맞는 나무의 탄식이라는 뜻으로,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픈 탄식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인 ‘풍수지

탄(風樹之嘆)'이 적절하다.

[오답] ①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17. [정답] ①

[풀이] 타동사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치는 동사이다. 문장을 만들 때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이다. '섞다'는 타동사이며 목적어를 넣어 '~을 섞다'로 쓴다. '섞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인 '섞이다'는 피동사이며 '쌀에 돌이 섞이다.', '여러 가지 소음이 마구 섞여 주위가 시끄러웠다.'와 같이 피동 표현에 쓴다.

[오답] ② '녹다'는 자동사이며 '녹이다'는 사동사이다.

③ '들리다'는 '손에 가지다'의 뜻인 '들다'의 사동사이다. 여기서 '들다'는 타동사이지만 '들리다'는 사동사이다.

④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는 뜻의 '먹다'는 자동사이다. 그리고 '바르는 물질을 배어들게 하거나 고루 퍼지게 하다.'의 뜻인 '먹이다'는 '먹다'의 사동사이다.

18. [정답] ③

[풀이] (다)는 헬멧을 썼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① (가)에서 언급한 친구의 오토바이 사고는 실제 사건이며,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말하기 전략이다.

② 매년 2천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두뇌 손상을 입는다는 정보,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의 80%가 두뇌 손상인 점은 모두 통계 정보이다.

④ 청자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면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는 청자에게 요구하는 행동이다.

19. [정답] ④

[풀이] ㉠, ㉡, ㉢은 모두 전우치가 도술을 부려 변신한 가짜 왕연희이다. ㉣은 가짜 왕연희가 진짜 왕연희를 가리키는 말로 진짜 왕연희이다.

20. [정답] ④

[풀이]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① 아내는 '나'가 무진에 다녀와서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

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아직 전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

② 글에는 무진에서 경험한 '나'와 아내의 기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가 무진에서 별초를 하려는 계획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가 무진을 가려는 이유는 아내의 권유, 엉뚱한 공상을 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등을 추론할 수 있다.